

특별취재

농어촌공 조남출 부안지사장 취임

“산·들·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져 관광부 안에서 근무하게 돼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지만 두려움이 앞선다며 부안 관내 농어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우수 지사로 이끌어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 농어촌공사 조남출 부안지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조 지사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직원간의 융화와 화합으로 조직문화 선도를 하여 농어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우수 지사로 이끌어 나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조 지사장은 신규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사회 가족공동체 형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심현섭 단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심현섭 단장에 심현섭 전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이 취임했다.

심현섭 단장은 2일 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철저한 공적관리를 통한 차질 없는 예산집행과 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철저, 친환경적인 세계 최고의 명품 새만금 개발, 청결한 조직문화 정착 및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 조성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만금이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군비 쌀 직불금 지급

부안군이 새해 돌팍날인 2일부터 군비 쌀 직불금을 지급해 주민감동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군비 쌀 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급된다.

지급규모는 총 면적 1만 3926ha에 73억 7100만 원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지원된다. 조용환 농업경영과장은 “지자체와 동일하게 국비 대비 5ha 미만 경작자는 52%, 5ha 이상 경작자는 50%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군비 직불금을 새해 첫 날 지급해 주민감동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경찰, 2017 시무식 가져 “주민 맞춤형 공감치안 실현”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는 2017년 해를 맞아 주민 맞춤형 공감치안 실현을 위한 정읍경찰이 하나로 뭉쳐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자는 힘찬 구호와 다짐을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날 시무식 행사에 앞서 오전 9시 충무공원 충혼탑에서 새해 정읍경찰 모두가 소통과 화합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이 평온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을 다짐하는 참배식도 거행했다.

김종화 서장은 “행복하고 안전한 정읍 만들기 위해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온 정읍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7년 새해에는 더욱 더 신명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주민맞춤형 공감치안’을 위한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 행복한 희망 정읍 만들 터”

김생기 시장, 시무식서 다짐 “여민가의(與民可矣) 자세로”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김 시장과 직원들은 여민가의(與民可矣) 자세로 ‘더 크고, 더 행복한 희망 정읍’의 새 시대를 열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은 2017 시청비전과 시민 저마다의 소망을 담은 새해 희망 메시지 낭독, 김시장의 신년사 낭독, 새내기 공무원의 각오, 희망 떡케이크 커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시청 광장에서 희망 종선을 날리며 올 한 해의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다짐하고 저마다의 소원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국면, 촛불집회 기회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 침체 등 올해도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며 “시민과 함께라면 이룰 수 있다”는 세종대왕의 큰 가르침, 여민가의(與民可矣)의 자세로 더 크고, 더 행복한 희망 정읍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새해 각오를 밝힌 북면 실무수습 공무원 이지민씨는 “조심을 잃지 않는 공무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 정읍의 새로운 활력소가자 활기찬 희망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2일 자료 부임한 김용만 부시장의 부임인사도 있었다.

김 부시장은 “수려한 자연과 우수한 문화자원 등 타 지역에 비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정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김생기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지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그리고 철도산업특화단지 등 든든한 100년 먹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는 정읍은 현재 발전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과 같은 상승기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함께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뛰어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에 힘이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

“어려울수록 구성원과 함께 고락을 나누자”

김제시(이승복 시장권한대행)는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2017년 시장방향을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고 사정이 어려울수록 구성원과 함께 고락을 나누어 힘을 모은다는 뜻의 단로투전의 다짐속에 정유년을 희망차게 출발하였다.

김제시는 지난해 중앙정부, 전라북도 및 각종 기관·단체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 등 총 38건의 표창 수상과 더불어 3억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시민 감동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시청 각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결과로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하였다.

특히 김제 최대 현안사업인 김제육교 재개설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로 국비 7억원 확보를 이끌어 내어 사업의 첫 단추를 꿰 수 있게 되었고 급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총 31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458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중교 정비사업과 행복학습집업체형 실습장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35억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만경 화포지구가 공항부지로 급부상하는 등 명실상부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아 앞으로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축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예산 5000억원 시대 달성 최선”

김종규 부안군수, 시무식서 비전 밝혀

부안마실축제 전국 10대 축제 도약과 예산 5000억 원 시대에 달성. “천년 부안을 위한 새날이 밝았다”며 “오늘 소망한 꿈들이 일년내내 우리 가슴 속에서 푸르고 싱싱하게 퍼덕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갖기 바란다”고 2일 2017년 시무식에서 김종규 군수가 밝혔다.

더욱이 김 군수는 “부안 역사 600년의 정신 잉겔볼로 2016년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며 “2016년의 성과를 발

판으로 담대한 성장과 생기 찬 변화의 2017년을 지금 시작하자”고 부안군정 8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종규 군수는 “부안마실축제가 전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며 “올해는 우리 나라 10대 축제 선정, 60만 관광객 유치로 목표로 한 번 더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군수는 “공모사업 64건 선정, 국도비 922억 원 확보를 통해 국가에 산 4000억 원을 3년 연속 달성했다”며

“올해는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종규 군수는 또 “민선 6기 71대 공약사업은 정상추진율이 90%라며 “올해는 완료율 90%를 목표로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줄포가족호텔 건립, 제3농공단지 선분양, 부안 역사·문화 브랜드 가치 향상, 2023 세계캠버리 유치 확정, 정원문화도시 부안 기틀 마련, 농·축·수산업 돈 버는 6차 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AI 방역 ‘총력’

축사내 잔존 오염물 세척·소독 등 사후 관리 만전

정읍시가 정유년 새해 첫 날부터 AI 방역 활동에 사력을 다했다.

김생기 시장은 지난 1일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를 방문, 위로 격려하고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근무공무원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AI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는 AI가 발생한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 내 분변과 잔재물을 생석회로 혼합한 뒤 비닐로 도포한 물린 축사 내 잔존 오염물 세척과 소독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매몰지에 대해서는 악취와 침출수 같은 2차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책임 관리자 지정과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FIS) 등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소독시설을 통과하는 전체 차량을 소독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축사 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현행 방식으로 1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부천과 동진강 및 도로변이나 농로 등이 AI 오염에 취약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농업용 광역 방제기 10대와 살수차 2대를 동원하여 발생지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 활동을 중점 전개하는 등 민·관이 총동원된 AI 방역활동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김 시장은 “신하 공무원을 비롯한 농가와 전 시민들이 정유년 첫날부터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농산분야 25개 사업 482억 지원

농업경쟁력 제고·육성

김제시의 올해 농산분야 사업 규모는 25개 분야 사업비 482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22개 분야 462억원 대비 20억원(4.3%)이 증액됐다.

2017년 농산분야 예산 482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부분별로는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12개사업 50억, 식량작물생산기반확충 9개사업 82억, 농가소득보전 4개사업 350억이 확정됐다.

신규사업 세부항목을 보면 농업인의 농작업중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 부담금 일부를 지원으로 총 보험료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50% 중 25%를 지원한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을 덜어주고 영농고취를 위한 경작규모 3ha이하 농가에 대하여 벼 재배 이삭거름(N-K) 지원을 위한 5억원의

추가 편성됐다. 이와 함께 쌀 적정생산에 위한 들녘경경제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들녘단위의 공동경영 범위를 기존 밭밭생산외 품목의 생산·가공 등 타 산업 부문까지 확대하여 신·소득원 창출 및 쌀 적정생산에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1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제주도 내 친환경 벼 체험학습장 및 농기계 전시관 조성으로 김제쌀의 이미지 제고와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친환경 논 (660㎡) 조성하여 제주도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벼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김제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농자재 및 직불금 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